	<h1>보 도 자 료</h1> <p>10.14(수) 15:00부터 보도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	---	---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부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 기술보증기금 회생관리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NICE CB운영실 / KCB 상품분석실			
책 임 자	최용호 산업금융과장 (2156-9750)	담 당 자	이종림 사무관 (2156-9752)	
	성낙영 재도전성장과장(042-481-4530)		한주현 사무관 (042-481-6846)	
	윤성은 신용정보부장(3705-5246)		김경민 팀장 (3705-5258)	
	김중식 전략기획실장(6362-0200)		민영안 부장 (6362-2024)	
	조경식 신용보증부장(053-430-4331)		강현구 팀장 (053-430-4336)	
	남경호 회생관리부장(051-606-7480)		신준철 팀장 (051-606-7491)	
	이은성 재도약성장처장(055-751-9620)		권흥철 팀장 (055-751-9630)	
	이세욱 CB운영본부장(2122-4530)		박상순 팀장 (2122-4642)	
	박경범 상품분석실장(708-6175)		최 척 차장 (708-6074)	
배 포 일	'15. 10. 14(수)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8매

제 목 : 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 ◆ 연대보증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지원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지원」**을 이용하여 채무조정과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보증기관(신·기보), 증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재창업지원」 상담과 신청을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정책금융의 **연대채무가 대폭 감면(50% → 75%)**됨으로써 재기가 쉬워집니다.
- ◆ 한번 실패한 경우라도 재기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시 **연체 정보로 인한 불이익을 겪지 않게 되고, 신용등급도 신속히 회복**됩니다.

※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0.14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을 발표

I. 추진배경

- 창조경제를 견인할 **혁신·기술형 기업**일수록 성공의 기회뿐만 아니라 실패의 가능성도 높은 것이 사실
 - * 실리콘 벨리의 평균 실패 경험: 2.8회(하버드대)
- 다만, 실패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경우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창조경제의 인프라 구축**으로서 의미
 - * 빌게이츠는 Traf-O-Data회사 창업을 경험으로 MS社를 설립, 마윈은 IT기업 창업 실패 후 재도전하여 알리바바社 설립, R.H. Macy는 4전 5기, M. Hershey 2전 3기만에 성공
- ⇒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창업가 정신이 창조경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

II.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정책 금융기관을 통한 재기지원 사업은 보증기관(신·기보),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다양하게 시행 중
- 다만, 운용 과정에서 재창업 지원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
 - 재기지원 사업이 여러 기관으로 산재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용자의 혼선을 초래
 - 신·기보 재기지원 사업의 경우 채무조정 기능이 없어 재창업자는 기존 연대 채무부담으로 인해 창업 유인 상실
 - 채무조정 기능이 있는 신복위의 ‘재창업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참여(채권)기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비활성(3년간 36개사 지원)
 - 재창업 지원을 받은 후에도 기존 연대채무의 연체 때문에 낮아진 신용등급으로 인해 정상적 경영활동에 애로

Ⅲ. 개선방안

【 기본방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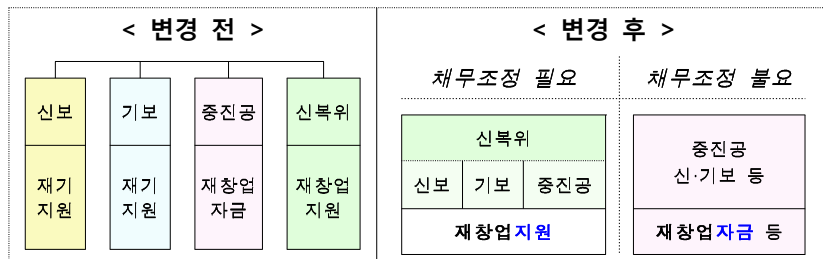
- ① 기존 재기지원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개편
- ② 신복위의 「재창업지원」사업을 수요자 관점에서 정비
- ③ 재기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지원
- ④ 재기지원 생태계 조성

1 재기지원 사업을 합리적으로 개편

- ☐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지원자에 대해서는 신복위의 「재창업지원」사업으로 간소화

* 채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지원은 기존처럼 중진공, 신·기보가 지원

⇒ 재창업지원 사업 간소화를 통해 인지도가 제고되고,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이 one-stop으로 제공됨에 따라 재창업기업의 편의성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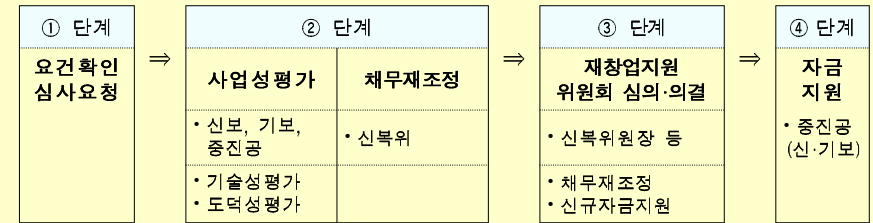
< 개선시 기대효과 (가상사례) >

폐업으로 인해 보증기관, 은행 등에 복수의 채무가 있는 양씨는 어디로 가서 재창업지원을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음

⇒ 신용회복위원회, 보증기관(신·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채무조정과 신규자금이 지원되는 '재창업지원'에 대해 상담받고 신청, 지원 가능

2 신복위 「재창업지원」사업 정비

◆ 「재창업지원」사업을 수요자 관점에서 지원 단계별 편의성 제고



① 대위변제후 3년 이내 기업도 지원하겠습니다.

- 신·기보 법상 원칙적*으로 대위변제 후 3년 이내에는 신규 보증이 금지되어 보증기관은 경직적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 통상 대위변제 후부터 법원을 통한 경매절차 등 구상권 회수가 마무리되는 기간이 대위변제 후 1.5년 내외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

- 지금까지 적극 활용되지 않던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3년 이내라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원하도록 개선

*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

- 또한, 신·기보법 관련 규정도 개정 추진(정무위 계류중)

⇒ 기업의 준비 상황을 감안하여 보다 조기에 재기 기회 제공

② 기술·도덕성 평가를 수요자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재창업신청자에 대한 기술성평가를 주채권기관이 수행함에 따라 지원이 보수화 및 엄격화되는 경향이 있어 외부 전문기관 등도 포함

- 재창업신청자가 직접 기술성평가 기관을 지정토록 선택권 부여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이 제고되고 신청자의 편의성 제고

- 성실한 실패자인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도덕성 평가 지표를 보완*하고, 조사관(신복위 內)을 설치하여 확인

* 사고당시 협조 여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여부 등 추가

⇒ 면밀한 심사를 통해 “성실한 실패자”에게 자금지원 가능

3 재창업자의 기존 채무를 혁신적으로 감면하겠습니다.

- 그동안 재창업자의 채무는 최대 50% 감면해 왔으나, 정책금융기관 채무는 75%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존 연대채무로 인한 부담을 경감

⇒ 잔존 채무가 획기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재창업이 가능한 환경 조성

* 예) 2억원의 연대채무 → 5천만원으로 경감(민간채무는 현재처럼 50%감면)

4 정책금융 기관 협업으로 신규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중진공이 신규자금을 대출(융자)하고 보증기관(신·기보)이 대출액의 50%를 보증하는 협력모델 통한 지원

* 중진공의 '16년도 「재창업자금」 예산 1,000억원을 활용하여 지원

⇒ 정책금융 기관간 협업을 통한 자금지원이 가능하고, 복수기관 자금 지원을 통한 부담 분산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 가능

< 개선시 기대효과 (가상사례) >

김씨는 사업 실패 후 최근 Fin-tech와 관련한 우수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신복위의 '재창업지원'을 신청하고 있으나, 기존 주채권 기관인 A 보증기관에서 다시금 기술성 평가를 하게 된다하니 사업 시작 전부터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지 않을까 걱정

⇒ 재창업지원 신청자가 신보, 기보, 중진공 및 외부 전문기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

이씨는 B기업체 대표로서 연대보증을 지고 있다, B기업 부도와 동시에 3억원의 연대보증 채무(C보증기금)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혁신적 창업 아이템에도 창업할 엄두가 나지 않음

⇒ 정책금융 채무 경감이 75%까지 확대되어 3억원의 채무가 75백만원으로 감소 되고 상환유예기간이 부여됨으로써 채무부담 경감을 통한 재창업 기회 증가

3 재기지원자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지원

1 재기지원자의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는 최소화 하겠습니다.

- 은행연합회가 재기기업인의 연체 등 불이익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

- CB사 역시 재기기업인의 연체 등 불이익 정보를 신용등급에만 반영하고, 다른 기관에는 제공하지 않도록 개선

⇒ 연체 등 신용정보의 활용처가 제한됨으로써 재기기업인의 불이익 최소화

2 성실한 재기기업인의 신용등급을 신속히 상향하겠습니다.

- 재기지원시에도 통상 낮은 신용등급으로 경영이 어려운 점 개선을 위해 성실하게 영업하는 경우* 신속하게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

* 재창업자금 지원받은 경우,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 등

** (예) 기존 10등급 → 6등급 상승에 2.6년 소요된 자도 가점 부여시 1.6년 소요 가능

⇒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이익 조기 해소 가능

3 재창업후 겪는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겠습니다.

- 신복위의 재창업지원을 받은 대표자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영업에 필요한 법인 리스, 카드 발급이 되도록 시범사업 운영

⇒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필요한 자동차, 카드 발급이 가능해 집에 따라 영업의 편의성 제고

< 개선시 기대효과 (가상사례) >

최씨는 중진공으로부터 재기지원을 받은 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신용등급이 줄곧 낮은 등급에 머물러 있어 금융거래 비용을 높게 지불

⇒ 재창업 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면 신속하게 신용등급이 상향조정 됨에 따라 저신용으로 인해 겪는 금융거래 불이익 일정부분 해소

박씨는 신복위를 통해 재창업지원을 받고 D기업을 창업했으나, 기존 폐업사업장의 연대채무자로서 낮아진 신용등급(10등급)으로 인해 경영에 필요한 자동차 리스 신청이 거절

⇒ 신복위와 제휴를 체결한 캐피탈사를 통해 심사를 받고 자동차 리스를 제공받음에 따라 일반 창업기업과 대등한 선상에서 경쟁 가능

4 재기지원 생태계 조성

① 재기기업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재창업 사관학교'를 서울, 대전, 부산 등 거점지역에 신설하여 실패원인 분석을 통한 실패 유형별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

⇒ 실패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재창업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

- 서울·대전·부산에 설치된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심층 재기 상담 및 정책자금 지원 기능을 강화

* '16년까지 주요광역권에 7개소 규모로 확대 추진 (現 3개소)

- 단순 재창업자금 지원에서, 자금지원 전 재창업사업계획 고도화, 지원 후 사후관리 강화 및 판로·투자 등 연계지원 시스템 구축

⇒ 재창업 제도에 대한 상담과 실제 지원으로의 연계가 강화

② 재도전 클러스터 조성으로 재기지원 사업의 시너지를 제고하겠습니다.

- 재창업 사관학교와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엮어 3대 권역(수도권, 동부권, 서부권)의 재도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 미래부·중기청 등 기관간 협업을 통해, 재창업 지원사업 공동 추진 등을 통해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창출

⇒ 기관간 협업 및 지역 중심 지원을 통해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하고, 재창업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기관의 성과에도 기여하는 유인구조 설계

IV.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금번 재기지원 대책으로 인해 성실하게 사업하다 실패한 사업자가 재기를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

- 기존 채무가 획기적으로 감소(50% → 75%)함에 따라 기존 연대보증 채무가 재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

- 신규자금 지원 과정에서도 창업자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 받게 됨에 따라 지원 가능성이 확대

- 재기지원자의 "실패 낙인" 효과를 최소화함으로써 재창업기업인도 일반 창업자와 대등한 선상에서 성장·발전이 가능

-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통해 재창업자에게 요구되는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재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

- 정책금융기관 협업 모델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창업자 지원

- 전산시스템 개발, 신복위 내부 업무처리 절차 개편 등을 신속히 마무리 하고 신규 재창업지원 제도를 신속하게 개시('16년 1분기)

- 관련 규정 개정, 조직정비 등 제도개선 필요 사항도 차질 없이 이행

< 별첨 >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세부내용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